“佛法 만났는데…그냥 갈 수 없잖아!”

한마음선원 청년회, 6월 27~28일 여름수련회 성료

안양본원서 100여 명 정진해
일상 속 분별심·꿈, 바로 보고
내려놓는 프로그램들 진행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안양본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10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정진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청년회(회장 배득렬)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안양본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그냥 갈 수 없잖아’를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人生難得佛法難逢)’는 경구에 맞닿아 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난 만큼 이번 생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정진하겠다는 한마음선원 청년회원들의 원력이 담겼다.

수련회는 5층 법당에서 봉행된 입재식으로 시작됐다. 입재식에서 지도법사 혜모 스님은 수련회에 참가한 100여 청년회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길 당부했다.

혜모 스님은 “본능을 쫓지 않으려면 나의 마음이 지금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채 마음을 깨어내야 한다. 이번 수련회가 마음공부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입재식에서 청년회원들은 발원문을 통해 일상 속 묵묵한 정진을 서원했다. 이들은 “나를 이끄는 한마음 주인공.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정말 이대로 모른 채 그냥 갈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는 바르게 눈을 떠, 내 삶의 진짜 본질과 마주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살아가며 마주할 그 어떤 괴로움도 마음의 차원을 뛰어넘을 밑거름으로 삼아 묵묵히 정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나를 이끄는 근본 자리에 진실하게 관해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3층 법당으로 이동한 청년회는 본격적인 수련회를 진행했다. ‘어서와, 이번 생은 처음이지’를 통해서는 서로의 관심사 등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시시비비-분별의 재판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통해 스스로 분별심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폈다.

1일차 저녁에는 촛불재도 진행됐다. 청년회들은 대행 선사가 1992년 8월 2일 법형제회 법회에서 설한 ‘인연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의 음성법어를 경청했다.

이밖에도 수련회에서는 ‘이번 생, 법 만남 기념식’, ‘행주좌와’, ‘넘어가 울타리’, ‘진실한 한생각의 위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련회에 동참한 청년회원들은 일상 속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배득렬 청년회장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의 인연을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가지 말고 진정한 정진을 하자는 의미를 담아 수련회를 기획·준비했다”고 수련회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연(佛緣)을 맺고 선원에 오게 된 만큼 이번 수련회가 마음공부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진영 청년회원은 “일상이 바쁘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 못하고 평소 습관대로 살게 된다”면서 “수련회는 집중적으로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 남은 1년을 그 에너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진흥원 ‘제23회 대원상’ 후보 공모

9월 1일~10월 2일 접수 진행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 후보 공모는 △출가 △재가 △특별정진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출가’와 ‘재가’ 부문 공모 대상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데 업적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기관)라면 응모 가능하다. ‘특별정진상’ 부문은 젊은 승가 인재 양성 불사를 위해 공부하는 스님 2명을 매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응모 희망자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원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 장려상 500만원, 특별정진상(2명)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대원상은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40주년 토론회

7월 8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성과 진단, 미래 재가포교 제시

조계종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대전환 시대 포교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8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사단 40년 성찰과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단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포교사 제도 40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포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 제도의 방향(김관태 산림연구소장)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단의 방향을 묻다(박종안 포교사단 부단장·부산지역단장)가 발표된다. 최원영 포교사단 대구지역단장과 박종안 포교사단 부단장·부산지역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송지희 불교IN 기자가 참여해 포교사단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운 기자

대구 동화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성료

15명 수료…2명 출가 발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6월 28일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를 회향했다.

6월 19일 입재한 이번 단기출가학교 참여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승가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 일정을 원만히 마쳤다. 15명(남 5명, 여 10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명이 수행자의 길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선광 스님은 회향사에서 “이번 수행에서 익힌 마음가짐과 원력을 일상 속에서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운 기자

“‘선명상’으로 전통·현대 잇는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11주년 포럼
선명상 대중화·학술화 협력 강조



한국불교의 다양한 수행 전통을 살피고 ‘선명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 티베트불교, 간화선, 현대 응용 명상까지 각 수행 전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선명상은 특정 수행법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다양한 명상 전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행 체계”라며 대중화와 학술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교계 31개 명상단체가 함께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공동대표 마가스님·정혜 스님·김열권·안희영)는 6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명상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협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포럼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 국민 평안을 위한 선명상의 대중화를 기치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불교,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를 지향해 왔다”며 “앞으로 협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국민 평안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운동을 더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은 환영사에서 “협회는 명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확산하는 데 힘써 왔다”며 “협회가 여러 수행 전통과 명상법의 비전을 공유하고, 명상의 지평을 넓혀 열린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포럼에서는 △초기경전과 상좌부 전통의 명상(조계사 교육국장 현암스님) △대승경전과 선명상-화엄경을 중심으로(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스님) △티베트 불교 선명상(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 △간화선 명상-AI시대 필요한 선명상(박희승 선명상치유센터장)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선명상이 특정 종파나 수행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티베트불교, 현대 명상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수행 개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앞으로 수행 체계의 정립뿐 아니라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를 통해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박지운 기자

조계종, 사찰림 ‘수행환경 보호’ 논한다

7월 9일, 정책세미나 개최
‘자연공존지역’ 이해 도모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자연공존지역(이하 OECM)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스님, 이하 환경위)는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이해 및 적용 방안’을 주제로 ‘2026년 환경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보전하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30×30 목표’와 OECM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주제는 △사찰숲의 과거와 현재-수행환경 보호의 역사 및 제도권 보호지역(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공존지역 활용과 사찰수행 환경 보호의 정합성(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찰숲의 미래 방향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이다. 이어 조계종 환경위원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 박영환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정환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찰림의 지속가능 방향과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현희 기자

“진관사 태극기, 국민의 유산으로”

진관사, 6월 28일 함월당서
백초월 스님 82주기 추모재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독립운동가 백초월(白初月, 1878~1944) 스님의 순국 82주기를 맞아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추모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백초월 스님의 순국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진관사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으로 더욱 널리 인정받기를 한마음으로 발원했다.

진관사는 6월 28일 함월당에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순국 8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백초월 스님은 3·1운동 이후 독립군 군자금을 모집하고 불교중앙학림에서 항일 비밀결사 ’한국민단본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44년 6월,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순국했다. 이후 2009년 진관사 칠성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태극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통해 항일 활동의 실체가 확인됐다. 당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는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불교계와 학계는 국보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추모재가 백초월 스님의 높은 뜻을 다시 새기고 더 나은 미래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백초월 스님의 정신과 진관사 태극기의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은평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부탄 108기 ‘깨달음 탑’…한국 참여 본격화

한국부탄우호협회, 기자간담회
11월, 4만명 참여해 세울 예정



부탄 남부 미래 도시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elephu Mindfulness City·GMC)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는 108기의 장춥 초르텐(Jangchub Chorten·깨달음의 탑)이 세워진다.

한국부탄우호협회(협회장 김민경, 이하 협회)는 6월 26일 서울 부탄갤러리에서 ‘부탄 Project 108 한국 참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Project 108’의 기획 의도를 발표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roject 108’은 인간의 번뇌와 정화를 상징하는 숫자 ‘108’의 의미를 본떠 기획된 프로젝트다. 108기의 초르텐을 통해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월 1일 약 4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높이 15m의 초르텐 108기가 108m 간격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프로젝트 취지 확산을 위한 미디어 활동 △선명상·웰니스 분야 콘텐츠 교류 △후원 △11월 1일 현지 자원봉사 참여 등 한국의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협회와 서울 남산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는 부탄 불교·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양국 불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사진〉 덕운 스님은 “Project 108은 세계인의 마음을 빛의 세계로 이끌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세계인의 희망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41회 불이상 방정란·여성개발원·권현옥

불이회, ‘불이선행상’ 신설
의료봉사 공헌자 선정도


방정란


권현옥

‘제41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분야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대련), 올해 신설된 특별상 ‘불이선행상’에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선정됐다.

불이회는 6월 25일 제41회 불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연구·실천분야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올해부터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상인 ‘불이선행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한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방정란 교수는 인도 밀교와 불교사상산스크리트 문헌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 불교학 및 인도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108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학술·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여성불교 발전과 재가불자 인재 양성에 기여해 실천분야에 선정됐다.

특별상 ‘불이선행상’을 수상한 권현옥 과장은 25년 이상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하며 생명존중과 자비행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지운 기자